성균관대 학생성공 포럼

“코리아텍 장기현장실습 취업률 제고 효과”

(‘22.12.2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 P P 센 터

1. 한국기술교육대 소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정부(고용노동부)가 출연·운영하는 **국책대학**입니다

미션

실천공학기술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가
양성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선도

비전

실천공학교육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글로벌 선도 대학

교육특성

- 산업계·사회 요구 사항을
반영한 현장중심,
실험·실습 중심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 4차 산업혁명 선도
커리큘럼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학부과

공학계열 6학부,
인문사회계열 1학부
융합학과,
HRD학과,
교양학부

- 재학생 총 4,500명

2. '현장실습 참여 비율' 평가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

중앙일보 2022 공학계열 대학평가

한국경제 2021 이공계대학평가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 1위

('코리아텍' 언론사 평가 스크랩)

한국경제신문 이공계 대학평가

코리아텍, 창의·실습·실용교육 가장 활발

(한국기술교육대)

캡스톤 디자인' 순위 분석

산기대, 실습작품 제출해야 졸업
한동대·영남대·인하대 뒤이어

경북대 작업치료과 2학년 학생들은 최근 한 손으로 편하게 치약을 짤 수 있는 압출기를 개발해 기술특허를 출원했다. 한쪽 몸이 마비된 환자가 한 손으로 칫솔에 치약을 짜서 양치질할 수 있게 한 장치다. 학생들이 이 장치를 개발한 것은 '캡스톤 디자인' 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경북대는 작업치료과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듣도록 하고 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5개 팀을 이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캡스톤 디자인은 공학계열 학생들에게 졸업논문을 작성하는 것 대신 작품을 기획,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산업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의 해결능력을 길러주고 현장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교수와 연구원이 도움을 줘 시제품과 완제품을 제작한다.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 (단위 %)

순위	학교명	비율	순위	학교명	비율
1	코리아텍	309.2	9	건국대(서울)	138.7
2	한국산업기술대	242.2	10	금오공과대	134.6
3	한동대	165	11	영재대	122.8
4	영남대	155.2	12	충북대	122.4
5	인하대	151.4	13	아주대	122
6	동아대	143.7	14	홍익대(서울)	119.3
7	단국대	141	15	서울과학기술대	113.3
8	한양대(서울)	139.7			

한국경제신문은 '이공계 대학 평가'와는 별도로 대학별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을 조사했다. 평가지표로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공학계열에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대학은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이었다.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이수한 학생 수를 공학계열 4학년 학생 수(공학계열 재학생 수의 4분의 1)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인 이수학생 비율이 309.2%였다. 코리아텍 4학년 학생 1인당 평균 3.09회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들었다는 의미다.

코리아텍은 수업을 많이 듣도록 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코리아텍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해외 공과대학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6개국 9개 대학에서 찾아온 18명의 외국 학생과 코리아텍 재학생 7명이 모여 에너지, 전기전자, 기계 분야 이론수업을 듣고 실습한다.

2위를 차지한 한국산업기술대는 이수학생 비율이 242.2%로 학생당 평균 2.4회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기대는 전교생이 캡스톤 디자인 작품을 출품해야 졸업이 가능한 현장 기반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산기대 관계자는 "작년도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이 91.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장 기반 교육이 높은 취업률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한동대 영남대 인하대는 이수학생 비율이 각각 165%, 155.2%, 151.4%로 3, 4, 5위를 차지했다. 143.7%로 6위를 차지한 동아대는 작년 부산권역 15개 대학이 참가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휩쓸었다. 동아대 신소재공학과 4학년 학생들이 참여한 '풍뎅쓰'팀은 열이 순환하도록 설계된 환계미 집의 원리를 활용, 곤충 사육 시스템을 개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2018 한경 이공계 대학 평가' 종합순위 10위권 대학 가운데 캡스톤 디자인 이수학생 비율이 높은 곳은 한양대(8위)가 유일했다. 조예찬 기자 archo@hankyung.com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이 다음달 19일까지 해외 공과대학과 함께 진행하는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의 수업 모습. 이번 프로그램에는 해외 6개국 9개 대학의 외국인 학생 18명과 코리아텍 재학생 7명이 참여한다. 조영택 제공

중앙일보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평가

순위	대학명
1	코리아텍(한국기술교육대)
2	숙명여대
3	국민대
4	충남대

코리아텍, IPP(장기현장실습제) 학생 취업률 월등

입력 2020-01-05 12:58 수정 2020-01-05 12:58 | 신문게재 2020-01-05 21면

코리아텍(총장 이성기)이 전국 37개 대학이 시행하고 있는 기업연계 장
들의 취업률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텍 IPP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자체 집계 기준, IPP 참여학
학생 취업률 76.4%보다 8.8%나 높았다. IPP는 대학과 기업간 고용 미
절감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
2012년 코리아텍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3~4학년생이 참여하는 IPP는 학생들이 대학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
개월)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전공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인력을 활용 및 채용하는 효과를 주는 특징이 있다.

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란?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개월/6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

대학교 **학업학기**

"**실무형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新산학협력 교육모델"

실무경험 + 학점인정

산업현장 **실습학기**

4. 3자 파트너십 모델

KOREA 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2012학년도부터 IPP제도를 실시, 매년 **370명 이상**의 재학생이 IPP를 통해 전공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

5. IPP 기대효과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 기대효과 : 대학과 산업체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

✓ 우수인재
✓ 조기발굴 및 검증
✓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절감
✓ 채용 비용 절감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양성

✓ 진로 설정의 기회
✓ 실무능력 강화
✓ 전공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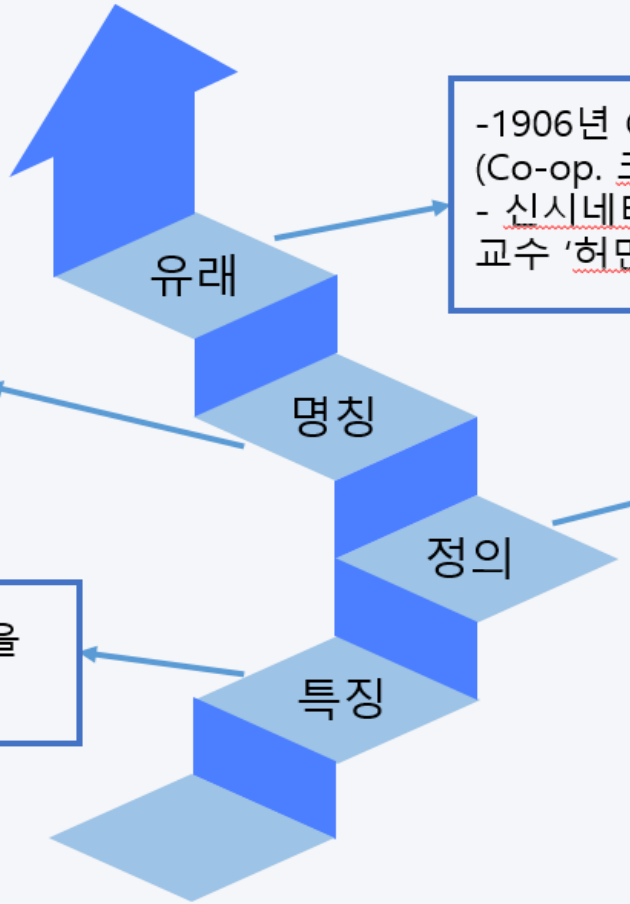
취업역량 강화

✓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한 교과과정 운영

현장중심의 실무형 인재양성

1900년대 초 미국에서 탄생한 Co-op(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산학협동교육)을 국내 최초로 한국 대학문화에 맞게 벤치마킹한 '한국형 코업'

Co-op 개념과 특징



-1906년 Cooperative Education Program (Co-op. 코업)에서 유래
- 신시네티 대학교(University of Cincinnati)의 공대 교수 '허먼 슈나이더(Herman Schneider)' 창시

교육형 산학협동, 산학협력교육, 산학협동교육, 현장실습, 산업체 장기인턴십, 학기제 현장실습 등 연구자와 교육기관(대학)마다 다양한 용어 사용, 보편적 용어 **'장기현장실습'**

"학생들의 학문적 목표 또는 경력 목표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생산적인 일 경험을 교실에서의 수업 학습과 통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세계코업협회. The World Association for Cooperative Education: WACE)

"학생(3~4학년)들이 대학 학부과정 중 일정기간을 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한 산업체에서 전공과 관계되는 일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해 일정 수준의 보수도 받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제도" (국내 학자)

학생과 대학, 고용주 세 주체의 파트너십을 기반 운영 및 공동 이익 추구

<Co-op 편익 선행 연구>

연구자	학생 편익	연구자	고용주(기업) 편익
Frid(1995)	장기현장실습 학생들이 비 장기현장실습 학생들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해결능력 강하며, 기술적 지식 더 많이 소유함	Gardner(2007)	고용주 50%는 졸업 전 장기현장실습과 인턴십 경험자 채용(우수한 인력 선별, 작업장 스킬 보유)
Wilsin & Lyons(1961)	경력목표 명확히 인식	Monstertrak (2004)	전공분야 일 경험(장기현장실습)은 일자리 확보에 결정적임
Wilson(1987)	자율성과 자신감 개발, 대인관계 욕구와 스킬 증대, 학업에 대한 동기 강화, 업무 참여에 자기주도적	Ricks & Van Gyn(1997)	장기현장실습 경험자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멘토링 발전, 주도적 역할함. 취업 성공률, 연봉, 조직에 대한 이해 더 높음
Raida & Sugerman(1984)	장기현장실습에서 경험한 직업을 첫 직업으로 선택 비중 높음	Braunstein(1999)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동기부여되고 열정적 종업원 고용, 특별 기술 인력 고용, 채용 및 교육비용 절감, 새 지식 유입
Blair & Millea (2004)	학업성취도 증가, 초봉 증가	The Artur D. (1974)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인력 고용, 장기현장실습 출신이 정규 대졸인력보다 더 높은 고용유지율, 직무성과, 채용수익률
Eames(1999)	지식, 기술적 역량, 작업장 문화 인식 역량 강화	Deane, Rankel & Chohen (1978)	비 장기현장실습생 종업원보다 비용절감, 기술적 지식, 업무수행 질과 양, 협동심, 신뢰성, 동기부여, 학습 능력, 생산성 높음
Wilson(1989)	경력목표 설정 명확화, 학업적 성취, 자신감, 일에 대한 지식, 높은 초봉	Hayes(1978)	일반 대졸자보다 채용수익률, 업무수행능력, 고용유지율, 연봉, 승진 등 높음
Zegward et al(2003)	작업장 문화, 행동에 대한 이해, 행동기준 학습	Braunstein, Stull, Emeritus (2001)	열정적 종업원 채용, 대학과의 적극적 상호작용, 특별 기술 인재 채용, 채용비용 절감, 새 지식 유입

9. IPP : 직무 위주 채용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

진로설정 기회

- 전공분야 현장경험을 통해 진로선택을 명확히 함
- 학교 복귀 후 원하는 진로를 위한 학습계획 설정 및 미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에 도움

전공실무역량 강화

- 학교에서 배운 전공지식이 실제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전공지식 이해도 향상
- 실제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첨단기술과 장비를 경험

취업역량 강화

- 실제 IPP 참여학생이 비참여 학생보다 취업률 상향(7% 이상)
- 자신의 전공 및 진로와 관련된 직무 실무경험 보유와 심화된 전공역량으로 차별화
- 직무 위주 채용에 맞는 직무 경험과 조직 적응력 향상

10. IPP 참여 프로세스

KOREA 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현장실습 지원

- 현장실습 수강 신청(아우누리)
- 참여기관및직무기술서확인
- 기관지원(이력서,자기소개서)
- 1:1 사전 상담 실시
  (실습 전담교수)
- 면접 및 기관 확정

사전준비

- 사전교육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실습학기 수강신청 확정 및 상해보험 가입
- 기관-학교-학생 협약 체결

실습착수

- 실습착수
- 출근부 및 보고서 제출
- 실습 현장방문(실습 전담 교수)

종료 단계

- 최종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성적확인
- 우수학생 선발 및 시상
- 사후상담(진로 및 취업지도)

11. IPP 참여 졸업생 인터뷰

졸업생이 말하는 IPP

"IPP 때 배운 지식과 경험, 삼성전자 합격에 큰 도움"

박성준 삼성전자 사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졸업생)

"취업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온라인 멘토상담을 통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선배님과 반도체 관련 직무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소서에 적을 직무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껴 실전 경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보내주는 IPP에 참여하게 됐죠."

지난해 7~12월까지 반도체제조 중견기업인 (주)티씨케이에서 IPP를 수행한 메카트로닉스공학부 출신 박성준씨(26)는 IPP 수행중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설비기술 직무에 도전, 연말에 합격하고 올해 1월부터 정식 사원으로 근무 중이다.

박시는 IPP를 수행하면서 AutoCAD를 사용해 설비 도면 파악 후 CVD SiC 제조설비 유지/보수, 현장에서 자동화 프로그램 개선, SEM과 XRD 등 다양한 계측 장비를 사용해 공정 시 MFC의 유량이나 공정 압력/온도를 어떻게 변경할지 선정하는 업무 등 생산기술 직무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배웠다고 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공정시간을 단축, 많은 칭찬을 받았을 때였다.

"학부에서 배웠던 PLC 지식과 실습 경험들을 기반으로 회사 설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학습했습니다. 이후 PLC 외주 업체, 설비 현장 근무자들과 소통하며 설비의 공정 과정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지 고민한 끝에 전체 공정 시간을 10분 단축하는 개선안을 완성할 수 있었죠. 팀장님과 멘토 선배 분이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을 때, 실습생 신분이라도 끈질긴 노력만 있다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박씨는 면접 시에 IPP 때 경험하고 수행한 직무에 대한 질문이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Melsec PLC와 AutoCAD를 사용하여 설비 구조를 이해한 것과 6개월 간 방진복 현장 근무 경험 등을 유창하게 설명하여 삼성전자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IPP는 면접에서 자신감 있게 저를 어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에서의 이론 공부와 현장에서 직접 설비를 다뤄보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체감했다.

"모든 제조 공정은 현장이 가장 중요한데, 다양한 위험요소를

더불어 IPP를 통해 회사 예절을 배우고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학교와는 달리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고 제가 하는 행동이나 실수가 기업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선배 멘토분들께 다양한 조언을 얻으며 저에 대해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구요."

박씨는 IPP에 참여코자 하는 후배들에게 꼭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아니라도 회사 생활에서의 예의범절뿐 아니라, 제조 공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한다. "이러한 경험들을 가공하여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녹여낸다면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 박씨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적극 추천한다"면서 "졸업 선배들의 강연, 취업 전문 컨설턴트의 특강, 인적성 대비 특강 등 매우 유익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많이 활용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IPP 이수 학점을 늘려주고 참여 기업을 보다 다양하게 선정하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IPP에 참여할 것 같다"고 바람을 밝혔다.

졸업생이 말하는 IPP

"IPP 수행 기관 취업 성공, 책임감과 마인드셋이 자양분"

정재서 NHN AD 사원
(산업경영학부 졸업생)

"채용연계형은 아니었지만, 취업 준비라는 공백기 없이 졸업 전 IPP를 수행했던 실습기관에 곧바로 취업한 것은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7~1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국내 유수의 디지털 마케팅서비스기업인 NHN AD에서 IPP를 수행한 산업경영학부 출신 정재서씨(26).

12월 IPP를 마치고 입사지원 의사를 밝힌 후 서류전형 및 2차례 면접을 거쳐 올해 1월 초 정식 채용된 그는 "IPP를 통한 업무 및 프로세스 습득, 팀원들과의 관계나 조직문화 적응의 수월함 등이 취업을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한 장점"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정씨는 재학생 시절 배웠던 이론적 지식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조직 경험을 위해 IPP를 선택했다.
IPP 기간 중 SA(Search Advertisement) 캠페인 관리, 광고 리포트 작성 및 결과분석, 키워드 추출 등 사무작업 보조와 더불어 퍼포먼스 마케터 혹은 AE(Account Executive)로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와 더불어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SNS 광고 소재 제작 업무도 병행했다.

현재 그가 속한 팀에서는 국내 1위 OTT 플랫폼 기업 및 대기업 패션 브랜드를 광고주로 맡아 E-Commerce 관련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정씨 "IPP 당시 수행했던 업무를 바탕으로 더욱 넓은 업무 풀을 수행 중"이라며 "특히 AE(Account Executive) 업무 수행을 통해 광고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적화를 하며 점진적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중이라 IPP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IPP 시절 정씨는 신규 뷰티 브랜드 및 영국 유명 의류브랜드 광고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SA, DA의 모든 광고를 맡았었다.
"기존에 광고주들을 관리하시던 선임급 직원분의 인수인계와 많은 서포트가 있었지만, 인턴급 직원인 제가 전반적 관리를 맡게 되어 부담이 됐죠."
혹시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이나 광고 집행으로 회사에 피해가 될 것을 우려, 선임 직원분에게 피드백과 코칭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원만한 업무를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다.

"지금 되돌아보면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성장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수행 가능한 업무 풀이 늘어났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현재 업무를 진행하면서 마주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며 배운 지식이 기본적인 업계 분석, 소비자 분석과 같은 일에 간접적으로나마 큰 도움을 주었다"면서 "이외에도 비즈니즈 역량 및 태도,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다"고 대학 시절을 회고 한다.

정씨는 IPP에 참여코자 하는 후배들에게 "IPP는 학생 신분으로 학교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 진출을 보다 수월히 해주는 기회를 준다"면서 "또한 스스로 마인드셋을 확립하는 게 필요한데, 비록 단순한 업무라 해도 수행 업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과정은 중요 업무를 할 때 수월하게 대처할 자양분이 된다"고 조언 한다.

이어 그는 '공기업'보다는 '사기업'을 추천했다. "IPP로 지원 가능한 공기업뿐 아니라 체험형 인턴을 보면 NCS 공부를 하거나 직접적인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경우를 봤다"면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실무경험을 쌓고 싶다면 사기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해당 기업에서 IPP를 수행한 선배들의 경험담이나 기업 조사를 미리한 후에 지원하면 IPP가 훨씬 더 좋은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1. IPP 참여 졸업생 인터뷰

KOREA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졸업생이 말하는 IPP

"2차례 IPP로 진로 명확히, 중소기업은 업무실력 크게 향상"

장우주 ㈜바텍 사원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주)한국클라우드에서 6개월간 IPP(장기현장실습)을 하고, 이어 7월~올해 1월까지 (주)바텍에서 2차로 IPP를 수행한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장우주씨(26). '채용연계형'으로 참여했던 장씨는 실습 종료일로부터 정규직 전환까지 잠시 계약직으로 일하다, 2월 곧바로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1차 IPP 때는 원하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했지만, 실습을 진행하며 가고 싶은 회사와 원하는 직무를 명확하게 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주)바텍은 치과 x-ray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이며,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지향 기업이다. 장씨는 IPP 기간 중 웹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프론트 및 백엔드)을 습득하고 토이프로젝트, 통계사이트 개발 및 배포 업무를 수행했다.

"치과 의료진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팀에서 해외 국가에 대한 통계, 각 치과에서 등록한 환자에 대한 통계 등을 개발하며 전공역량을 많이 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제 사용자가 있는 통계사이트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팀장님 등 유저들이 사이트를 유용하게 잘 사용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좋은 상품을 만들어낸 기분이 들었죠."

IPP는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을까?
"학교를 다니며 배운 전공 수업들은 시험을 위한 공부였지만, IPP는 실제 프로젝트를 하며 개발자들과 소통하며 수업 때 배웠던 개념과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등 실전 지식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분야에 대한 흥미를 더욱 갖게 됐다고. 취업에 있어서도, 본인 스스로 회사를 관찰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고 한다.

"취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보니 실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첫 번 째 IPP를 통해서는 원하는 직무와 업무방식을 파악해 취업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IPP에서는 회사가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회사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며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장씨는 중소기업의 매력으로 '자기주도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작은 기업일수록 주니어 개발자도 규모가 큰 기능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얻는 지식은 오로지 자산이 되어 실력을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씨는 대학 후배들에게 다양한 이유에서 IPP를 적극 추천한다. "기업 현장에서 실적에 대한 압박 없이 실습생이라는 유리한 위치에서 업무를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을 파악할 수 있고, 중사자분들께 업계에 대한 경험과 조언을 얻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유익한 시간을 갖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IPP센터 교수님께도 많은 지도와 관심을 받은 점에 감사한다"면서 "더 많고 다양한 기업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IPP에 대한 호응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졸업생이 말하는 IPP

"IPP는 취업과 진로를 이끌어 준 동앗줄 같은 존재"

서병천 ㈜티에프이
(정보통신 전공 졸업생)

경기도 화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제조 중견기업 (주)티에프이에서 7월부터 정직원으로 근무 중인 서병천씨(30세). 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곳에서 IPP를 수행하며 MCU(Micro Controller Unit. 특정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세서) 테스트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했다. 7월부터 '실습생'이란 꼬리표를 뗀 후 지금은 기존 업무 외에 다른 프로젝트로 직무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서씨는 "우리기업은 능동적인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도 가파르게 향상되는 등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남다른 애사심을 엿보인다.

그가 IPP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실무를 겪어본 후 취업해서 일하는 것과 이러한 경험 없이 일하는 것의 차이가 꽤 클 것이라는 생각에 IPP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재학 중 학점을 이수하며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죠."

나이가 비교적 꽉 찬 그는 '채용연계형 IPP'란 기회를 잡았다. "제 동기 중 10여명이 IPP로 취업을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채용연계형을 선택하라고 조언해 준 것도 힘이 됐습니다.

그는 "학부생은 진로를 고민할 때 생각의 폭이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먼저 취업한 선배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이 도움이 된다."면서 "그러나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 여부는 직접 부딪혀봐야 알 수 있는데, IPP는 이러한 점에서 취업 고민 해결해주고 진로를 이끌어 준 동앗줄 같은 존재였다"고 회고한다.

막상 졸업을 하고 나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정보도 얻고 전공실력을 키울 기회가 없는데, IPP는 재학 중 이러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큰 장점이라고.

그는 IPP센터 전기 • 전자 • 통신공학부 담당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다. "신동민 교수님이 지원기업의 기본정보를 비롯하여, 세세한 팁까지 자세히 알려주신 덕분에 IPP를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한다.

서씨는 IPP가 '마인드 형성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분야는 배움을 게을리 하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IPP 기간 동안 항상 긴장감을 갖고 배운다는 자세로 임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지만 잊어버린 내용이나, 부족함을 느껴 더 꽤활한 성격인 서씨는 6개월간 IPP를 하며, 부서에 새로 온 경력직들의 회의 준비사항을 비롯해 업무용품의 위치 등 소소한 부분까지 가이드해주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 상사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아왔다.

서씨는 IPP에 참여코자 하는 대학 후배들에게 "IPP는 하긱 중 공백 없이 실무와 함께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만큼 재학생들에게 전혀 손해가 없는 프로그램"이라며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를 생각보다 많이 얻고 본인의 진로를 찾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IPP에 참여할 때 기업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풍부하게 주어진다면 학생들이 기업과 직무를 선택할 때 보다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IPP 입사 동기가 있어서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바람을 밝혔다.

11. IPP 참여 졸업생 인터뷰

KOREA 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졸업생이 말하는 IPP

"IPP는 취업시장에서 큰 메리트, 학생과 기업 모두에 도움"

이종국 ㈜지아이티
(컴퓨터공학부 졸업생)

"IPP 덕분에 채용 연계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자신이 원하는 바가 같다면 기업에서도 굳이 인재를 따로 채용할 필요가 없고, 실습생 입장에서도 별도의 교육과정 없이 바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상호 윈윈하는 것이 IPP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현대자동차 그룹사인 지아이티에서 IPP를 수행하고, 곧바로 정규직으로 입사한 컴퓨터공학부 출신 이종국씨(27세)의 이야기다.

지아이티는 자동차 진단기 솔루션을 제고하는 기업으로서, 자동차 진단사업, 커넥티비티 사업, 전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그는 커넥티비티SW개발팀에서 맞춤형 커넥티비티 서비스인 'KIA Connect Lite' 베트남과 'My KIA' 러시아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다. 커넥티비티는 자동차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사업을 뜻한다.

이씨는 IPP에 참여하기 2년 전인 2학년 때부터 IPP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학점 이수와 동시에 풍부한 인턴 경험을 쌓으면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IPP센터 컴퓨터공학부 담당 현장실습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작년 겨울 지아이티를 선택했다.

이씨는 실습 3개월 차에 팀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가서 공석이 생김에 따라 프로젝트를 인수인계 받아 실습을 수행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프로젝트는 기아 원격 시동 어플인 KIA Connecrt Lite였는데, 베트남, 러시아 쪽을 인수인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실무에 투입되다 보니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전체 프로젝트 로직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해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설계하면서 해당 프로젝트 로직을 파악해 나아갔고, 고급 안드로이드 기술들을 파악하여 적용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앱 배포도 해보고, 오류도 분석하면서 업무를 잘 수행했는데 이러한 점들이 정규직 채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다.

"채용연계형 IPP였지만 사내 자체적인 인턴십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정규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성과들로 정규직 채용에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씨는 IPP가 전공 역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회고한다.

"실제 현업을 해보니, 기업에서는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중요성, SOLID 원칙, 클린 코드를 위한 도구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추후 개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할지 가이드를 잡게 되었죠."

그는 IPP를 참여하려는 대학 후배들에게 "취업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된다."고 힘주어 말한다.

"스스로 무언가를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현업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채용연계가 아니더라도 채용으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당 기업에 채용이 아니더라도 6개월 동안 배운 경험을 살려 잘 준비한다면 충분히 취업시장에서도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기술교육대 IPP에 대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기업과 매칭도 잘되는 것 같다." 면서 "IPP 이수 학점을 좀 더 늘려준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람을 밝혔다.

졸업생이 말하는 IPP

"채용연계형 IPP는 성실한 실습 집중이 곧 취업"

송찬희 트위니(Twinny)
(기계공학부 졸업생)

"회사 제품 라인업 중 사람을 추종하여 따라다니는 로봇이 있는데, 하드웨어 테스트를 위해 4시간 동안 주행시킬 일이 있었습니다. ros package를 활용하여 4시간 동안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부서에서도 테스트 자동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때였는데, 이 프로그램 개발로 팀원 분들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전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인 트위니(Twinny)에서 IPP(장기현장실습)을 수행하고 5월부터 곧 바로 정직원으로 취업한 송찬희씨(24)의 소중한 경험담이다.

송씨는 IPP 참여 1년 전 IPP센터에 노크를 했었다. 기계공학부 현장실습 담당교수와 상담을 통해 IPP를 가기 위해 보다 충족해야 할 여러 사항에 관한 조언을 듣고는 IPP 참여를 잠시 미루었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론과 실습과목도 들었고 자율주행자동차연구회 동아리 활동, 프로그래밍 특강 및 대회 참여 등에 매진함으로써 '업그레이드'된 신분으로 트위니에서 IPP를 하게 됐고 결국 '채용연계형'으로 취업에도 성공했다.

"4학년 동안 학점도 향상시키고 전공 관련 다양한 경험도 축적해 자신감을 얻은 상태에서 IPP센터 윤준희 교수님의 도움으로 로봇분야 전문기업에서 IPP를 수행한 점에서 감사와 함께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 개발 회사에서는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궁금했는데, 트위니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QA(Quality Assurance)직무를 맡아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품질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했다.

이러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채용된 후에는 로봇에 적용된 전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 버전별 테스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함을 찾아 해결해야 하기에 책임감은 더 커졌다고.

송씨는 IPP를 통해 자율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품질 보증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습득이 크게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기획, 개발, 영업 등 다양한 팀들과 협업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및 예의범절을 많이 배웠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가장 많이 배운 점은 '책임감'.
"테스트를 완료하고 품질 보증이 되어야 로봇이 납품 가능한데, 마감일까지 일이 끝나지 않으면 다른 부서가 곤란해 지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주어진 자본으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효율을 끌어 올려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배운 것이 회사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IPP의 가장 큰 보람은 취업이다.
"IPP 실습생 시절에 사람이 일일이 진행하던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케 함으로써 공수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인 점 등이 채용연계에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 다.

송씨는 "실습생 신분으로 실무를 진행하고 사회생활을 한 경험은 저에게 매우 값졌다."면서 "혼자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고 어떤 직무가 나에게 맞는지 파악하기 힘든데, IPP를 하며 이러한 점들을 모두 파악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한다. 이어 그는 "채용연계형은 업무 수행이 곧바로 취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업무능력 향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인다.

현재 송씨 부서에는 2학기 IPP에 참여한 재학생들이 있는데 회사생활에 필요한 여러 팁과 정보를 제공하며 선배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송씨는 "기업을 선택할 때 아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발품을 팔아 정보를 수집하곤 하는데, 기업 정보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는 리뷰 시스템이 있으면 학생들이 기업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KOREA TECH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감사합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 P P 센 터